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8.(목) 6:00 < 4.18.(목) 석간 > 배포 2023. 4. 17.(수)

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

- 4월18일,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5만톤급 납사 운송선박 첫 입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18.(목)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되었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하였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하였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하였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트레이더사들이 울산 지역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인 SK가스가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고, "아직 가스 저장시설의 완공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석유제품 첫 입고 행사 개요**

1. 추진배경

□ 정부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북항에 **대규모 상업용 석유·가스 저장시설을 구축 중**

□ '23.12월 **석유저장시설 완공** 후 트레이더사가 유치됨에 따라, **석유제품 첫 입고 행사 개최** (LNG 시설은 '24.6월 완공 예정)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4.18.(목), 10:40~11:30 /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 울산 남구 신항로 852번길 41

□ **(주최/주관)** : KET / 한국석유공사·SK가스

□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석유공사 사장, SK가스 사장, KET 대표, 울산시 부시장 등

3. 상세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40~10:50	(10')	▸ 사전환담·입장	행정동 접견실
10:50~11:00	(10')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1:00~11:05	(5')	▸ 홍보영상 시청	-
11:05~11:10	(5')	▸ KET 경과보고	KET 대표이사
11:10~11:16	(6')	▸ 기념사	석유공사 사장, SK가스 사장
11:16~11:24	(8')	▸ 축사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울산 경제부시장
11:24~11:27	(3')	▸ 선장(입항선) 꽃다발 전달	KET 대표이사
11:27~11:30	(3')	▸ 사진촬영 후 이동	